

광주일고 김병석·화순고 최민재 한·일·대만 고교야구 대표 출전

“악바리 정신으로 우승하겠다”

25일 대만에서 개막

“악바리 정신으로 좋은 경기 펼치고 오겠습니다.”
광주일고 내야수 김병석과 화순고 외야수 최민재가 오는 25일 대만에서 개막하는 2011 한국·일본·대만 고교야구대회 대표로 출전한다.

2학년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의 감독은 이정훈 북일고 감독이 맡고, 최재영 진흥고 감독이 코치로 참가한다.

유격수 김병석은 장타력을 갖췄으며 안정된 수비가 장점이다. 중견수로 활약하고 있는 최민재는 빠른 발로 대표팀 유니폼을 차지했다.

대성초 4학년때 부모님 물려 테스트를 받으면서 야구 선수가 된 김병석에 비해 최민재는 대학시절까지 야구 선수로 활동했던 아버지 손에 이끌려 대전 신흥초 4학년때 야구를 시작하는 등 두 선수는 포지션과 야구 스타일, 야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다르지만 ‘주장’과 ‘정근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병석과 최민재는 광주일고와 화순고의 신인 주장이다. 또 두 선수가 톨모델로 꼽는 이가 바로 SK의 2루수 정근우다. ‘악바리 정신과 근성 있는 야구’가 정근우를 톨모델로 꼽는 이유다. 특히 김병석에게는 비슷한 체격의 내야수만큼 가장 닮고 싶은 선수다.

김병석은 “수비도 잘하고 중장거리 타자다. 정근우 선배처럼 체격 조건이 좋지 않지만 웨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파워를 키웠다. 닮고 싶은 선수다”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팔꿈치 부상’이라는 아픈 기억도 있다. 최민재가 중학교 3학년때 팔꿈치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김병석은 지난해 뱀조각 제거수술을 받으면서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만큼 지금의 야구가 더 절실하고 감사하다.

최민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부담도 된다. 가서 꼭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 일본전은 반드시 이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화순고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면서 뭉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내년에도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팀을 이끌겠다. 개인적으로는 기동력이 좋고 수비도 안정적인 타격 기록이 심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 꾸준한 활약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지난 6일 광주일고에서 열린 연습경기에 앞서 광주일고의 김병석(왼쪽)과 화순고 최민재가 3개국 고교야구 대회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병석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기는 경기를 하고 오겠다”며 “광주일고 주장으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싶다. 팀을 잘 이끌고 가야한다는 책임감도 있지만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만큼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광주일고와 화순고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게 된 두 선수는 오는 21일 대만으로 출국해 결전을 준비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디디에 드록바(가운데)가 7일 영국 런던 스텐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발렌시아(스페인)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마지막 경기에서골을 넣은 뒤 다비드 루이스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의 남자’ 박주영

아스널 챔스 조별리그 최종전에도 결장

주축 선수를 대거 제외했지만 끝내 ‘태극 전사 캠프’ 박주영(아스널)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다.

아스널은 7일 새벽(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의 카리아스카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림피아코스(그리스)와의 2011-201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6차전 최종전에서 1-3으로 완패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된 아스널은 이날 승패와 상관없이 승점 11(3승2무1패)로 조 1위를 확정했다.

지난 5차전에서 16강 진출권을 따낸 아스널은 이날 로빈 판 페르시, 에런 램지, 미켈 아르테타, 알렉스 송, 시오 윌콕, 제르베리

등 주전급을 모두 뺀 채 원정길에 올랐다.

이 때문에 마르세유(프랑스)와의 4차전에 출전했던 박주영에게 출전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스널 뎡 감독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포지션 경쟁자인 마루앙 샤프크를 선택했다. 그리고 박주영은 끝내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전반 16분 만에 올림피아코스의 라피크 제부르에게 선제골을 내준 아스널은 전반 36분 다비드 푸스터에게 결승골까지 내주며 일찌감치 무너졌다.

아스널은 후반 12분 요시 베나유이 추격골을 넣었지만 후반 44분 올림피아코스의 프랑수아 모데스토에게 쐐기골을 얻어맞고 조별리그 첫 패배의 쓴맛을 봤다. /연합뉴스

원성진, 삼성화재배 바둑 우승

구리 꺾고 첫 세계타이틀

원성진 9단이 생애 처음으로 세계타이틀을 획득했다.

원 9단은 7일 중국 상하이 그랜드센트럴 호텔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16회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결승 3분기 최종국에서 235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중국의 구리 9단을 상대로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원 9단은 결승 3분기 전적 2승1패를 기록해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1998년 입단한 원 9단은 2007년 천원전과 지난해 GS칼텍스배에서 우승하며 국내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세계대회에서의 우승은 처음이다.

중국의 간판스타인 구리는 올해 초 비씨카드배 결승에서 이세돌 9단에 2승3패로 패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세계대회 결승에서 한국 기사의 벽에 가로막혔다.

이날 최종국은 다시 둘을 가린 결과 원성

진의 흑번으로 바둑이 시작했다.

원 9단은 초반부터 좌변에 집을 쌓기는 실리작전을 펼쳤으나 중앙 대마가 물리면서 백에게 두꺼운 벽을 허용해 불리해졌다.

포석만큼은 세계 최강이라는 구리와 초반 접전에서 원 9단이 당한 모습이였다.

그러나 ‘원편치’라는 별명답게 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원 9단은 중반부터 백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특히 좌상귀를 파괴하는 등 상변에서 집을 쌓기 형세의 균형을 맞춘 원 9단은 중앙 백을 압박하면서 미세하게 역전에 성공했다.

불리해진 구리는 중반에 접어들며 까다로운 승부수를 거꾸 날렸지만 원 9단이 침착하게 방어하면서 승리를 굳혔다.

원 9단이 반면으로 9~10집가량 앞선 형세가 흔들리지 않자 구리는 235수 만에 돌을 던졌다.

원 9단은 우승상금으로 2억원, 구리는 준 우승 상금으로 70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6회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결승전에서 구리 9단을 꺾고 승리한 원성진 9단.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넨, 허부언더코팅
 - 만도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인테너
 - 자동차경비일체, 빗더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만도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차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미엔트 3~5만원 무상점검
- 펄싱 펄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